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3학년도 2월

교육학(음악교육)석사학위논문

고등학생의 음악흥미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구조모형 검증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고정환

# 고등학생의 음악흥미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구조모형 검증

Verify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Music  
Interest, Academic Self-Efficacy,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of High School Students

2023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 악 교 육 전 공

고 정 한

# 고등학생의 음악흥미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구조모형 검증

지도교수 조 정 은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 악 교 육 전 공

고 정 한

## 고정한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김지현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구미정 (인)

위원 조선대학교 조정은 (인)

2022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b>I. 서론</b> .....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선행연구 .....	4
3. 연구모형 및 가설 .....	7
4. 용어의 정의 .....	9
<b>II. 이론적 배경</b> .....	<b>11</b>
1. 음악흥미도 .....	11
2. 학업적 자기효능감 .....	16
3. 학교생활 만족도 .....	21
<b>III. 연구방법</b> .....	<b>27</b>
1. 연구대상 .....	27
2. 측정도구 .....	28
3.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	30
4. 연구 절차 .....	34
5. 자료처리 .....	35
<b>IV. 연구결과</b> .....	<b>37</b>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 .....	37
2.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 .....	44

V. 논의 .....	50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	50
2. 변인 간 구조적 관계 .....	53
3. 음악흥미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56
VI. 결론 및 제언 .....	57
1. 결론 .....	57
2. 제언 .....	58
참고문헌 .....	60
부록 .....	69

## 표 목 차

〈표 1〉 음악흥미도 구성요인 .....	13
〈표 2〉 학교생활 만족도 개념 .....	21
〈표 3〉 연구대상 특성(N=350) .....	27
〈표 4〉 설문지 구성 내용 .....	29
〈표 5〉 음악 흥미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31
〈표 6〉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32
〈표 7〉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33
〈표 8〉 성별에 따른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 .....	37
〈표 9〉 학년에 따른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 .....	39
〈표 10〉 음악수업 참여 시간에 따른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 생활 만족도의 차이 .....	41
〈표 11〉 학교 구분에 따른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만족 도의 차이 .....	42
〈표 12〉 기술통계 결과 .....	44
〈표 13〉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	45
〈표 14〉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	46
〈표 15〉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	47
〈표 16〉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및 가설 검증 결과 .....	48
〈표 17〉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및 가설 검증 결과 .....	49



##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	7
[그림 2]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점 .....	18
[그림 3] 연구 절차 .....	34
[그림 4] 측정모형 분석 결과 .....	47
[그림 5] 구조모형 분석 결과 .....	49

국문초록

# 고등학생의 음악흥미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구조모형 검증

고정한

교육학과 음악교육 전공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이 연구의 목적은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리고 학교생활 만족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G.광역시에 거주하는 인문계 고등학생 중에서 음악수업에 참여한 359명을 연구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질문에 대한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된 9부를 제외한 총 350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대응표본 t-검정, 일원변량분석, Scheffe, 측정모형 분석, 구조모형 분석, 그리고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첫째,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리고 학교생활 만족도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학년, 주간 음악참여 시간, 학교 구분)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음악흥미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 만족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음악흥미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완

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리고 학교생활 만족도는 구조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고등학생이 참여하는 음악수업에서는 높은 음악흥미도를 유발할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 고등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 만족도의 향상을 위해 음악수업을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고등학생, 음악수업,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

## ABSTRACT

# Verify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Music Interest, Academic Self-Efficacy,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of High School Students

Ko Jeong Han

Advisor : prof. Cho, Jeoung-eun

Mar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music interest, academic self-efficacy,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for high school students to participate in music classe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359 subjects who had experience participating in music classes while attending high schools in metropolitan city, Gwang-ju, was invited and data was collected. And, a total of 350 copies were used for analysis, except for 9 copies that were judged to have insincere responses or errors. The collected data were derived from result through the corresponding T-test, one-way variance analysis, Scheffe, technical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easurement model analysis, structural model analysis, and mediating effect analysis. As a result,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music interest, academic self-efficacy,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music classes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gender, grade, weekly music participation time, school classification).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music interest for high school students to participate in music classes had a positive effect on academic

self-efficacy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had a positive effect on school life satisfaction. Finally, third, academic self-efficacy was found to play a complete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usic interest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In conclus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music interest, academic self-efficacy,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for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music classes were structurally related. And it was found that academic self-efficacy had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usic interest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This means that the higher music classes for high school students induce the music interest, the better the academic self-efficacy, which can augment the school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se results, I hoped that an environment where music classes are strategically planned and operated will be made in school field in order to improve academic self-efficacy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for high school students.

Key word: High School, music class, Music Interest, Academic Self-Efficacy, School Life Satisfaction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강조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향하는 학생 중심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이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초·중·고등학교의 문화·예술·체육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학교 내 지적인 문화 체험이 가능하도록 공교육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교육부, 2018). 특히,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음악을 즐기고 음악을 생활화하기 위해 학생오케스트라와 뮤지컬이 음악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꿈과 재능을 발견하도록 지원하는 공교육 내 예술교육으로 진행되면서(교육부, 2016) 학교 현장에서는 음악교육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김소리, 문소영, 2018; 원초롱, 2021; 이영인, 2014; 조성아, 2019).

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보다 가장 크게 변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인교육을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외국어 등 일반교과만을 중요시하며 음악교육을 등한시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 이전에는 ‘학교별 수업시수 20% 자율적 증감운영’ 과 ‘집중이수제’ 의 도입으로 인해 음악교과 시수는 일반 과목에 비해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김진숙, 이미숙, 2012). 그러나 최근에는 학생들의 문화예술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2018년 학교기본 계획안에 의해 학교예술교육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사업들이 고등학교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교육부, 2018). 이에 따라 고등학교 음악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지지하기 위해 음악수업, 음악 동아리 활동, 음악활동 프로그램, 방과 후 활동 등과 관련된 연구들(김미숙, 이미연, 2017; 김은지, 2019; 배하은, 2020; 서주희, 2019; 안진형, 2011; 오주리, 2020; 윤진광, 2019; 이영인, 2014)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음악활동이 음악참여자들의 음악흥미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음악흥미도는 개인이 음악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의 정서 또는 음악에 대한 감정이다(Radocy & Boyle, 2012). 이를 통해 개인은 음악의 가치를 인정하고

음악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음악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김향숙, 2001), 음악활동을 지속하는 원동력이 되어 높은 음악적 성취 수준과 학습효과로 이어진다(태진미, 2011). 즉 음악흥미도는 학업 동기를 촉진시켜 음악 수업에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태도를 유발하기 때문에(이인영, 2015; 한수정, 한경훈, 2014) 청소년들이 높은 음악흥미도를 가지고 참여한 음악활동은 음악뿐만 아니라 학업이나 학교생활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음악활동은 학업성취도(박명숙, 2018; 최진호, 2012), 학업스트레스(장철, 신현석, 2016; 홍재운, 조선희, 2018), 학업적 자기효능감(이경민, 2015; 이혜승, 2017), 학교생활적응(김소리, 문소영, 2018; 원초롱, 2021), 학교생활 만족도(강선영, 2016; 오주리, 2020)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져 있다. 특히, 청소년의 음악활동은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정서적 각성과 같은 다차원적 영역이 포함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김아영, 박인영, 2001; Bandura, 1986).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학업 상황에서 학업적 수행의 원동력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청소년이 음악활동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면 학업 상황에서 점차 도전적인 난이도의 과제를 선호하게 된다(전윤경, 2015). 나아가 음악활동에서 배운 자기행동 통제와 정서표현 방법은 학업 상황에 적용되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게 된다(김혜정, 양은아, 2013).

이처럼 음악활동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검증되어 왔다. 그러나 아쉽게도 음악활동의 내적동기이자(Shaw & Tomcala, 1976) 참여 수준을 결정하는(김향숙, 2001) 음악흥미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다만 몇몇 선행연구에서 음악활동의 참여동기(나현이, 2014), 음악선호(홍문영, 2015), 참여기간(나현이, 2014; 홍문영, 2015)에 대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음악흥미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즉 음악활동은 음악흥미도를 기반으로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음악흥미도의 하위요인인 음악태도·음악선호·음악경험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두 변인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규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음악활동은 학교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교육적 효과를 지닌다(나현이, 2014). 구체적으로 음악활동의 교육적 효과는 크게 사회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으로 나뉜다. 먼저 사회적 측면을 살펴보면, 음악은 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호흡을 맞추는 활동이기 때문에(Kohut, 1973) 청소년은 음악활동을 통해 향상된 의사소통 능력을 활용하여 또래 집단이나 교사와 긍정적으로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된다(석문주, 최은식, 함희주, 권덕원, 2006). 다음으로 정서적 측면을 살펴보면, 청소년은 음악활동을 통해 집단 소속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면서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남혜선, 2009).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은 학교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게 된다(오주리, 2020). 실제로 강선영(2016)과 오주리(2020)의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악활동을 진행한 결과 학교생활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학교생활 만족도 역시 앞서 살펴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유사하게 음악흥미도와 직접적인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음악흥미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 만족도를 직·간접적으로 예측하는 지표로 작용한다(Jonson-Reid, Davis, Saunders, Williams, & Williams, 2005).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원주연, 2022), 학업적응뿐만 아니라 사회적응과 일반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군재환, 김경희, 2013). 실제로 최정희(2021)와 장두현(2019)의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는 학교생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최정희, 2021).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하면 음악흥미도(강선영, 2016; 오주리, 2020), 학업적 자기효능감(이경민, 2015; 홍문영, 2015), 그리고 학교생활 만족도(정승원, 2015; 정혜진, 2016)는 모두 음악활동을 통해 향상된다. 나아가 음악활동의 원동력인 음악흥미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나현이, 2014; 홍문영, 2015). 즉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음악활동을 통한 음악흥미도의 영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 변인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자



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음악흥미도가 학업이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화하는 데 어려움이 따름으로 세 변인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기초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리고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18 학교기본 계획안을 기반으로 점차 학교예술교육이 강조되는 시점에 음악교육이나 활동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음악이 학생중심교육으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선행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음악흥미도와 학교생활 만족도, 음악흥미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리고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음악흥미도와 학업적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강선영(2016)은 음악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음악흥미도와 학교생활 만족도는 음악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높다고 하였다. 즉 음악수업은 학생의 음악흥미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오주리(2020)의 연구에서 음악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음악흥미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음악은 음악흥미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유사한 맥락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 음악활동을 활용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소리와 문소영(2018)은 음악치료가 탈북아동의 학교생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음악치료는 학교생활적응력의 하위요인인 학교환경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교사적응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청소년들의 음악활동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학교생활적응은 학생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학교생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다(김주연, 2009).

다음으로 음악흥미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이다. 사실 국내 선행연구에서 음악흥미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음악활동은 음악흥미도(강선영, 2016; 오주리, 2020)와 자기효능감(박가영, 2015; 한상철, 조혜련, 2004)에 각각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음악흥미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음악활동을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홍문영(2015)은 방과후 기악활동에 참여하는 초등학생과 참여하지 않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기악활동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음악활동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음악흥미도의 하위요인인 음악에 대한 태도·선호·경험과 관련된다. 예컨대 음악태도는 개인의 음악활동에 대한 자아개념이 포함된 것으로 음악에 관한 관심의 크기에 따라 음악흥미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Shaw & Tomcala, 1976). 즉 음악태도는 음악활동에 대한 내적동기와 연결된다. 음악선호는 개인의 음악 취향으로 음악참여에 대한 수준을 결정짓는다. 즉 음악선호에 적합한 음악활동은 음악흥미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음악경험은 실제 개인이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방향이나 빈도이다(Simpkins et al., 2010).

끝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검증되었다. 최정희(2021)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정서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조절 학습능력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중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는 모두 학교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 변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학교생활적응은 학생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학교생활만족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김주연, 2009). 따라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들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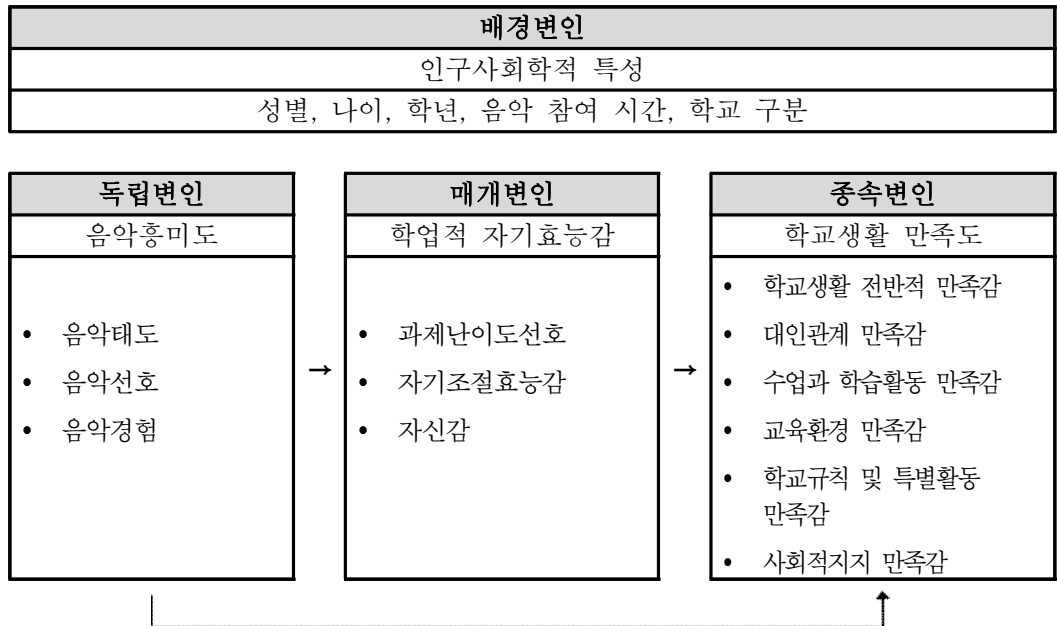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하면 청소년의 음악활동은 음악흥미도,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적응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음악활동을 지속하는 원동력이자 음악에 대한 정서 또는 감정인 음악흥미도가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음악흥미도가 학교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다소 부족하다. 그러나 음악활동이 음악흥미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에 효과적이고 음악흥미도가 음악에 대한 정서 또는 감정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음악흥미도는 학교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이 연구에서는 두 변인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음악교육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3. 연구모형 및 가설

####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들의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리고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배경변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독립변인은 음악흥미도, 매개변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종속변인은 학교생활 만족도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2) 연구가설

이 연구는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들의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학년, 주간 음악참여 시간, 학교 구분)에 따라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1.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학년, 주간 음악참여 시간, 학교 구분)에 따라 음악흥미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2.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학년, 주간 음악참여 시간, 학교 구분)에 따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3.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학년, 주간 음악참여 시간, 학교 구분)에 따라 학교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음악흥미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만족도는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다.**

- 2-1.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음악흥미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음악흥미도는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3.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음악흥미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3-1.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음악흥미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 용어의 정의

### 1) 음악흥미도(Music interest)

음악흥미도는 개인이 음악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의 정서 또는 음악에 대한 감정으로 정의된다(Radocy & Boyle, 2012). 이는 음악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음악적 능력과 다른 개념으로 구분된다(Gardner & Tamir, 1989). 즉 음악흥미도는 개인의 감정에 의해 형성되는 추상적 개념으로 음악적 태도를 변화시키고 음악에 대한 집중과 정서적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연구에서 음악흥미도는 김향숙(2001)이 제시한 개념을 따른다. 김향숙(2001)은 음악흥미도가 음악태도, 음악선호, 음악경험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음악태도는 음악 수업이나 활동에 대한 음악적 흥미와 자아개념이다. 음악선호는 개별적인 음악 취향과 생활에서의 음악감상 및 활용 정도에 대한 개념이다. 음악경험은 개인적인 음악 교습 경험과 교내·외 음악활동 경험을 포함한다.

### 2)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 상황에서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Bandura, 1986). 이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 수행 능력을 실제 수행으로 발휘할 때 원동력으로 작용하거나(김아영, 박인영, 2001; Bandura, 1986),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할 때 학습자가 소유한 기술과 상관없이 상황을 처리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으로 작용한다(정규태, 2009). 이러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과제를 선택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동기화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복순, 김영혜, 2011).

이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Bandura(1986)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기반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개발 및 표준화하여 하위요인을 제시한 김아영과 박인영(2001)의 개념을 따른다. 이들이 제시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에는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이 포함된다.

### 3) 학교생활 만족도(School life satisfaction)

학교생활만족은 학교라는 환경적 공간에서 또래 집단 및 교사들과 생활하고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이다(김주연, 2009). 즉 학교생활 만족도는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서 개인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욕구가 성취되었을 때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다. 이러한 학교생활 만족도의 수준은 학생이 학교에서 생활하며 마주하는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김주연, 2009, 구아름, 2013, 임하성, 2015).

이 연구는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척도를 개발한 김주연(2009)의 개념을 따른다. 구체적으로 학교생활 만족도의 하위요인은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 대인관계 만족감,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교육환경 만족감,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 사회적지지 만족감으로 구성된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음악흥미도

#### 1) 음악흥미도의 개념

흥미(interest)는 between과 exist를 결합한 단어로 ‘사이에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한 경향이나 선호 그리고 감정적 느낌이나 상태로 정의된다(Gardner & Tamir, 1989). 이러한 흥미는 개인과 대상(활동·자료·결과) 사이의 유기체적인 결합을 의미하며 정서 및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와의 관련된다. 구체적으로 정서적 측면에서 흥미는 인지적 과정을 촉진하고 특정 활동에 대한 참여를 수반하는 긍정적 정서로 여겨진다(Renninger, 1990). 행동적 측면에서 흥미는 어떤 경험이나 행위를 수행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행동 경향성으로 여겨진다(Dewey, 1902). 따라서 흥미는 개인의 행동 방향과 활동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음악흥미도는 개인이 음악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의 정서 또는 음악에 대한 감정으로 정의된다(Radocy & Boyle, 2012). 즉 음악흥미도는 개인의 감정에 의해 형성되는 추상적 개념이다. 이는 개인의 음악적 태도를 변화시키고 음악에 대한 집중과 정서적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음악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음악적 능력과는 다른 개념으로 구분된다(Gardner & Tamir, 1989). 구체적으로 개인이 음악의 가치를 인정하고 음악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음악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며(김향숙, 2001), 향후 음악활동을 지속하면서 음악적 성취수준과 학습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태진미, 2011). 음악흥미도는 학업 동기를 촉진시켜 적극적인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태도를 유발하기 때문이다(이인영, 2015; 한수정, 한경훈, 2014).

이러한 음악흥미도는 다른 영역의 흥미와 달리 비교적 이른 시기에 형성되어 점차 분명해지는 특성을 지닌다(Allport, 1961). 따라서 청소년기 학생들의 음악적 흥미를 육성하는 것은 음악교육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Abeles, Hoffer, & Klotman, 1994). 즉 학생의 음악흥미가 높으면 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음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높아진 음악성취는 다시 학생이 음악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선순환의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자 Dewey(1964)는 음악흥미도와 음악교육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음악적 상황에 도움이 되는 음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음악적 표현이나 감상에 대한 능동적 태도와 흥미를 강조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학생들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친숙하게 음악감상과 음악적 표현 활동을 통해 음악흥미도가 높아지는 것을 음악교육의 목표로 삼았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연스럽게 음악에 집중하며 음악성을 기를 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고차원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립하게 된다(이영인, 2014). 따라서 음악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자가 음악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다양한 음악적 경험이 가능한 학습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학습자는 음악교육을 통해 음악과 동기화되어 높은 음악흥미도를 경험할 수 있다.

## 2) 음악흥미도의 구성요인

음악흥미도에 대한 구성요소의 특징과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 정확하게 제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몇몇 연구자들이 제시한 음악흥미도의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김향숙과 신동주(2017)는 유아의 음악적 흥미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음악흥미도의 구성요인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구성요인은 음악활동 5개 영역과 음악적 흥미 5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먼저 음악활동 영역에는 노래 부르기, 음악감상, 음악 관련 신체표현, 악기연주, 음악 만들기가 포함된다. 다음으로 음악적 흥미 영역에는 음악적 즐거움, 음악적 호감도, 지속적 참여, 적극적 참여, 음악적 주의가 포함된다.

Allport(1968)는 음악의 행동체계와 관련하여 흥미, 태도, 가치로 영역을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흥미는 음악활동에 만족하여 해당 활동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태도는 음악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감정적 반응으로 경험이나 학습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다. 가치는 음악활동이 가치 있다고 느끼며 음악적 가치의 상호관계를 알고 체계를 재구성하여 음악적 가치가 내면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음악에 대한

태도 척도를 개발한 Shaw와 Tomcala(1976)는 음악활동에 따른 흥미도, 음악가에 대한 흥미도, 음악에 관한 내재적인 정서반응, 음악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흥미도, 음악을 통한 사회적 교류에 대한 흥미도를 음악흥미도의 구성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김향숙(2001)은 한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악흥미 검사 도구를 타당화하였다. 그 결과 음악흥미도 구성요인으로 음악도, 음악선호, 음악경험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김향숙(2001)의 연구에 따라 음악흥미도 구성요인을 음악태도, 음악선호, 음악경험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표 1> 음악흥미도 구성요인

참고문헌		구성요인
김향숙(2001)		음악태도, 음악선호, 음악경험
김향숙, 신동주(2017)	음악활동 영역	노래 부르기, 음악감상, 음악 관련 신체표현, 악기연주, 음악 만들기
	음악적 흥미 영역	음악적 즐거움, 음악적 호감도, 지속적 참여, 적극적 참여, 음악적 주의
Allport(1968)		음악흥미, 음악태도, 음악가치
Shaw & Tomcala(1976)		음악활동에 따른 흥미도, 음악가에 대한 흥미도, 음악에 관한 내재적인 정서반응, 음악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흥미도, 음악을 통한 사회적 교류에 대한 흥미도

### (1) 음악태도

음악흥미도의 구성요인 중 음악 태도에는 음악 수업이나 활동에 대한 음악적 흥미와 자아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김향숙, 2001). 먼저 음악활동에 따른 흥미도는 감상·기악·가창 영역과 같은 활동을 통해 경험하는 흥미를 의미한다(Shaw & Tomcala, 1976). 이러한 음악활동에는 음악을 감상하거나,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것, 노래를 부르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는 개인의 음악활동에 대한 실천이나 선호도와 관련된다.

다음으로 자아개념은 음악 분야에 대한 개인적 관심의 정도 및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흥미를 의미한다(Shaw & Tomcala, 1976). 이를 토대로 개인은 음악에 대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더 알고 싶어하며 적극적으로 음악활동에 임하거나 관련 취

미활동을 선택한다. 이는 개인이 음악의 가치를 알고 자신만의 체계를 구성하여 음악적 가치가 내면화된 상태와 같다(김향숙, 2001). 즉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음악을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며 관련 서적을 보거나 음반을 듣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 (2) 음악선호

음악흥미도의 구성요인 중 음악선호에는 개별적인 음악 취향과 생활에서의 음악 감상 및 활용 정도에 대한 개념이 포함된다(김향숙, 2001). 이와 관련하여 Temmerman(2000)은 음악흥미와 관련된 음악활동 선호도 항목으로 노래부르기, 음악감상, 신체표현, 악기연주 등을 제시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Yim과 Ebbeck(2009)은 음악활동에 대한 선호로 노래부르기, 음악감상, 악기연주, 댄싱과 같은 유형을 구분하였다. Denac(2008)은 음악적 흥미를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음악활동과 음악 감상곡의 선호도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음악선호에는 음악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된다(Shaw & Tomcala, 1976). 예컨대 개인이 특정한 음악가의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태도도 음악흥미도와 관련되는 것이다. 이때 음악가는 클래식 음악가와 대중 음악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작곡가·연주자·성악가·가수 등에 해당한다.

## (3) 음악경험

음악흥미도의 구성요인 중 음악 경험에는 개인적인 음악 교습 경험과 교내·외 음악활동 경험이 포함된다(김향숙, 2001). 이와 유사하게 Simpkins과 동료들(2010)은 음악흥미를 악기연주 활동에 대한 호감과 참여 빈도로 보았다. 또한 개인이 음악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얻는 음악적 성향이나 정서는 행복감·기쁨·슬픔·우울함·두려움 등으로 표현되어 결과적으로 음악흥미와 연결된다(Shaw & Tomcala, 1976). 그뿐만 아니라 교내·외 음악활동 경험은 개인이 음악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개인은 사회적 교류에 참여하면서 음악흥미를 경험하게 된다.

###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음악흥미도 관련 선행연구

음악흥미도는 음악활동을 시작한 나이, 참여한 음악교육의 형태, 음악활동 경험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beles et al., 1994; Dewey, 1964; Yim & Ebbeck, 2009). 이에 따라 국내 연구자들은 다양한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음악흥미도 차이를 검증해 왔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미래(2021)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타악기를 활용한 음악활동인 킷타 수업을 진행하고 성별, 사교육 경험 여부, 학년에 따른 음악흥미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음악흥미도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조윤경(2015)은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음악-미술 통합수업 참여에 따른 음악흥미도 변화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연구대상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음악흥미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고, 여학생은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연구자는 음악을 미술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더욱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여학생의 변화 수준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하였다.

박혜수(2018)는 중학생의 음악적 환경이 음악흥미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대상의 학년, 성별, 부모 학력에 따른 음악흥미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학년에서 1학년의 평균 점수는 3.01이고 2학년의 평균 점수는 2.80으로 2학년보다 1학년의 음악흥미도가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의 평균 점수가 2.84점이고 여학생의 평균 점수가 3.03점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음악흥미도가 더 높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다희(2017)는 중학생의 음악 사교육 경험에 따른 음악흥미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음악 사교육을 시작한 나이·기간·동기에 따른 음악흥미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유아기에 음악 사교육을 시작하는 경우 음악에 대한 정서적 태도는 높지만 음악에 대한 신념과 가치가 형성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음악교육은 학생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따라 알맞은 방법과 내용을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영인(2014)은 고등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음악수업 진행 방식이 다른 두 학교와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음악흥미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때 학교는 음악수업이 학기 단위 집중이수제로 운영되는 A학교와 매 학기 음악수업을 운영하는 B학교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학교에 따른 차이를 음악흥미도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A학교가 B학교에 비해 음악교과의 흥미, 음악적성과 태도, 음악에 대한 가치관 점수가 낮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든 하위요인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높게 나타났지만 음악교과의 흥미 요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고등학생의 음악흥미도는 성별이나 학년보다 음악수업 운영방법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음악흥미도는 보편적으로 성별, 학년, 음악 사교육 경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영인(2014)의 연구에서는 성별에서 음악흥미도의 하위요인 중 음악교과의 흥미만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고, 학년은 모든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음악흥미도가 타 집단(예: 유아, 중학생)의 음악흥미도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을 예측하게 한다. 이를 고려할 때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음악흥미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후속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검증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학업적 자기효능감

### 1)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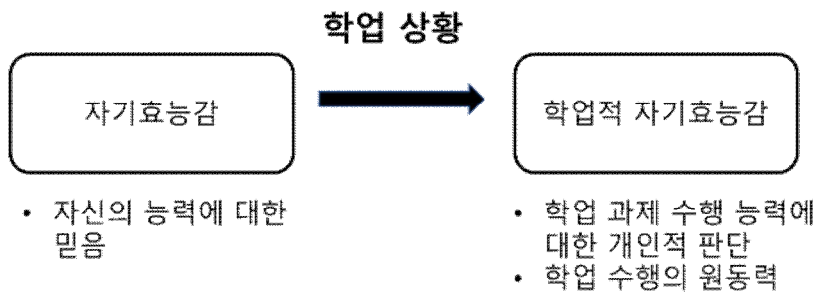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개인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자신의 특정한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조직·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Bandura, 1986). 즉 개인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정서적·인지적·행동적 기술을 조직하여 효과적으로 종합하는 생산적 능력이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자신감(Confidence)이 있다. 자신감은 개인이 자신에게 주

어린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의 강도를 의미한다(박종열, 2020). 그러나 자기효능감은 높은 수준의 확신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인지된 능력의 수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신감과 분명한 차이를 지닌다. 이로 인해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과 자신의 수행성과를 비교하면서 형성되는 사고와도 같다(김성옥, 2009).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행동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특정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효능감 이론은 Bandura(1986)의 사회학습이론에서 발전되었다. 사회학습이론은 인간 행동이 환경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을 지닌다. 이를 고려할 때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관한 판단으로 여겨진다(Bandura, 1986). 유사한 맥락으로 Kanfer와 Hagerman(1980)은 목표달성을 위해 활동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개인의 잠재능력에 대한 다차원적인 인지적 판단을 자기효능감이라고 하였다. Meyer(1992)는 개인이 스스로 과제 수행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에 관한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자기효능감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학자들의 정의는 개인의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그렇지 않은 개인과 실제 능력에 큰 차이가 없더라도 목표로 설정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최옥순, 2015). 즉 개인의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실제 보유하고 있는 수행 능력 이상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최근 자기효능감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이 행동을 선택·지속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Bandura(1986)는 학업 상황에서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개인의 능력에 관한 판단을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으로 개념화하였다[그림 2]. 이러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 수행 능력을 실제 수행으로 발휘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거나(김아영, 박인영, 2001; Bandura, 1986),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할 때 개인이 어떤 기술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으로 작용한다(정규태, 2009). 따라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과제를 수행할 때 느끼는 불안의 수준이 낮고 보다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고 자기조절·자기평가·자기반응과 같은 자기조절능력이 우수하게 나타난다(Pintrinch & Degroot, 1990; Zimmerman, Bandura, & Martinea-Pons,

1992). 이상을 종합하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다양한 학습 상황에서 지식과 활동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내적동기이다. 따라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변인으로써 학업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과제를 선택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동기화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복순, 김영혜, 2011). 따라서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책무로 여겨지고 있다.



[그림 2]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점

## 2)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

국내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타당화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인을 따른다. 김아영과 박인영(2001)은 Bandura(1986)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기반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개발 및 표준화하여 하위요인을 구성했다. 이들이 제시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에는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이 포함된다.

### (1) 과제난이도 선호

과제난이도 선호는 학습자가 어떤 과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난이도 수준을 선택할 때 선호하는 수준이다(노원재, 2007). 즉 과제난이도 선호는 학습자가 어떤 목표나 과제를 수행할 때 어떤 수준의 난이도를 선호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는 실제 학습 현장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적



인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표출된다(김아영, 박인영, 2001).이처럼 과제난이도 선호의 수준은 학습자가 학습 상황에서 행동을 선택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노원재, 2007).

## (2) 자기조절 효능감

자기조절 효능감은 개인이 자기관찰·자기판단·자기반응 등 자기조절 기제의 수행에 대한 효능기대이다(Bandura, 1986). 자기관찰은 개인이 자기 행동에 대해 의도적으로 주의집중하는 것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이봉원, 2019). 또한 과제의 진행 정도를 평가하는 자기조절 기능으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한다. 자기판단은 개인이 자신의 목표와 현재 수행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판단에 적용되는 기준, 목표의 특성, 목표달성의 중요성, 수행에 대한 귀인에 따라 수행의 긍정성이나 부정성 여부가 결정된다(김미영, 조선희, 2018). 자기반응은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의 만족도에 따라 행동을 조정·향상·개선하기 위해 스스로 동기화되는 것이다(Bandura, 1986).

## (3) 자신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측면의 자신감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이다(정규태, 2009). 한편 Bandura(1986)는 한 개인이 학업적 측면에서 결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조직·수행하는 능력에 관해 판단하는 것을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자신감으로 개념화하였다. 즉 학업 상황에서 자신감은 학습자의 전반적인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확신이나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측면의 자신감은 학습자가 학업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지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을 통해 성립된 후 정서적인 반응으로 표출된다(Bandura, 1995).



###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연구대상의 문화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진행되어왔다. 연구자들은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하면서 효율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높이는 특징들을 밝혔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은애(2015)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별, 학년, 거주지역, 학력인식수준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연구대상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평균이 높았지만 과제난이도 선호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박원우(2021)와 신재균(2018)은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박원우(2021)의 연구에서는 학습적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평균 점수가 높고 과제난이도 선호와 자신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재균(2018)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봤을 때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자기조절 효능감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두 연구는 유사한 집단의 성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검증하였지만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후속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보편적으로 과제난이도 선호와 자신감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예측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박원우(2021)는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비교적 수동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면서 관람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해당 결과를 스포츠 측면에서 해석한 것으로 음악수업의 특성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음악수업에 참여한 연구대상들의 성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보고 현상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 3. 학교생활 만족도

#### 1) 학교생활 만족도의 개념

학교는 전통적으로 청소년의 지·덕·체를 조화롭게 발달시키고 지식과 인격을 겸비한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조직체이다. 그리고 학교 교육의 본질적 기능에는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가르치는 교육 기능과 기존의 문화유산을 전달하고 습득시켜 새로운 생활방식을 익히게 하는 사회화 기능이 있다. 따라서 학교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활동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써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올바른 자아개념이나 가치관 등을 형성하여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으로 큰 역할을 담당한다(김아영, 2012).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이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생활만족은 학교라는 환경적 공간에서 또래 집단 및 교사들과 생활하고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이다(김주연, 2009). 이러한 학교생활만족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표 2>와 같이 개념화 되어 왔다.

<표 2> 학교생활 만족도 개념

참고문헌	개념
주현정(1998)	학생의 모든 행동이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잘 조화되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교사나 또래 등 의미 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학교 수업에 적극적이고 학교 규범에 순응하여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김미경(2000)	학생들이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견지하는 긍정적인 느낌이나 감정 또는 태도의 정도
한주희(2000)	학교라는 환경적 공간에서 학생들이 교사나 또래 집단과 관계를 맺으며 교육활동을 하는데 충분한지의 정도
유상구(2000)	학교생활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이자 태도로서 생활의 실제와 기대 간의 일치에서 오는 개인의 관점에 따른 주관적·개인적 현상
장신국(2002)	학생들이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서 갖는 선호 감정으로써 학교에서 체감되는 외부 경험에 대한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 느낌이나 태도의 정도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학교생활 만족도는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서 개인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욕구가 성취되었을 때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학생과 교사의 관계는 수업과 더불어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김주연, 2009).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며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으므로 학생과 교사의 관계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도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학생이 교사와의 관계가 조화롭지 않아 친근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면 반항적·거부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김주연, 2009). 둘째, 학생들이 또래와 잘 어울리면서 협동적·능동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기초적인 사회적응으로써 학교생활 만족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구아름, 2013). 반면 친한 친구가 거의 없어서 고립되거나 또래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학교나 학급집단에 대해 반항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임하성, 2015). 셋째, 학교수업은 학생이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학교생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김주연, 2009). 예컨대 학생이 학교에 부적응하게 되면 학습의욕이 낮고 수업태도가 바르지 않으며 수업 자체에 대해서 심적 부담감이나 권태감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성적 측면에서 낮은 수업성취도를 경험하게 되면서 학교생활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넷째, 학교규칙은 교사 및 또래와 함께하는 집단생활에 적용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임하성, 2015). 이러한 학교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생활 만족도를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2) 학교생활 만족도의 구성요인

학교생활 만족도의 구성요인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학교환경 변인, 교과수업 변인, 대인관계 변인, 사회·심리적인 변인 등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황진숙(1996)은 학교생활 만족도의 구성요인을 학교환경, 학교행사, 수업과 학습(교사의 수업방법, 교사의 실기평가 방법, 숙제, 노력에 대비한 자신의 성적), 인간관계(교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학급 분위기, 전반적인 학교생활로 6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김향란(2002)은 4가지 영역으로 학교환경, 학습활동, 교사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를 제시하였으며, 최상미(2003)는 교우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 학교행사로 5개 영역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만족도 척도를 개발한 김주연(2009)의 결과를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즉, 이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만족도를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 대인관계 만족감,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교육환경 만족감,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 사회적지지 만족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은 모든 요인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하면서 학교생활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정도이다(김주연, 2009). 해당 요인은 학생이 학교생활을 구성하는 학교 환경, 학교행사, 수업과 학습, 대인관계, 학급 분위기, 규칙과 같이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포함한다.

### (2) 대인관계 만족감

대인관계 만족감은 학생이 학교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만족감의 정도이다(김주연, 2009). 이때 학교 구성원은 교사와 학급 동료이다. 즉 대인관계 만족감에서는 학생이 학교에서 형성하는 대인관계를 학급 동료와의 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로 구분한다. 먼저 학급 동료와의 관계는 청소년기의 학생이 사회적 관계를 발달시키고 효과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독립적·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로 작용한다(계선자, 이정우, 김명자, 박미석, 유을용, 2001). 즉 교사와 학생은 공식적으로 학습을 위한 관계이지만 학생이 올바른 자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관계를 성립할 필요가 있다(김병성, 1995). 이로 인해 교사는 교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집단 지도자, 부모 대리인, 친구, 상담자 등의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은 하루 대부분을 함께하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부정적이면 학교생활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김주연, 2009).

### (3)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과 관련된다. 즉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은 교사가 진행하는 수업내용이나 질문을 비롯하여 학생이 수업 중

학습활동과 관련된 활동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정도이다(김주연, 2009). 구체적으로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감정,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학업성적 향상에 유리하며 행동 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된다는 것이다. 즉 학교에서 성공 경험을 쌓는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지만 실패를 경험하는 학생들은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교육적 측면에서 학교와 교사들은 학생들이 실패 경험보다 성공 경험을 꾸준히 쌓을 수 있도록 수업과 학습활동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 (4) 교육환경 만족감

교육환경 만족감은 학교를 구성하는 물리적 환경이나 학급 분위기와 같이 사회심리적 분위기와 관련된 제반 교육환경에 대해 학생이 느끼는 만족감의 정도이다(김주연, 2009). 이러한 학교의 교육환경은 지위 환경, 구조 환경, 과정 환경으로 구분된다(정원식, 이상로, 이성진, 1982). 구체적으로 지위 환경에는 교직원 상황, 학생 구조, 사회적 평가, 시설, 역사와 전통 등이 포함된다. 구조 환경에는 문화적 상태, 생활공간, 강화체제, 가치지향성, 집단특성, 학습체제 등이 속한다. 과정 환경에는 수용과 거부, 자율과 통제, 보호와 방임, 성취와 안일, 개방과 폐쇄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교육환경에는 정규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학급 분위기나 교사 및 학생간의 인간관계를 포함하는 학교의 전반적인 환경적 조건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5)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은 학교규칙을 잘 지키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함과 동시에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반면 학교현장에는 두발, 복장 규정 등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칙도 존재하여 학생들의 불만과 원성을 사고 있다. 이러한 규칙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하여 김미경(2000)의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중요도를 검증한 결과 교사 관계와 교우 관계 다음으로 학교규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 (6) 사회적지지 만족감

사회적지지 만족감은 학생이 학교에서 교사와 학급 동료에게 사회적인 행위나 태도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의 정도이다(김주연, 2009). 이때 사회적인 행위나 태도에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가 포함된다. 먼저 정서적 지지는 애정이나 표현적지지 등으로 명명되기도 한다(Nolten, 1994). 이러한 사회적지지는 학생들의 심리적·신체적 적응에 도움이 된다(Meeus, 1994). 구체적으로 친구, 교사, 가족 등으로부터 심리적이거나 물질적으로 사회적지지가 풍부한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건강하고 잘 적응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관련 선행연구

학교생활 만족도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개인적 특성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준이 결정된다(김주연, 2009). 또한 이연희(2014)는 표현활동 수업에 참여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별과 집단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연구대상들의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의 모든 하위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표현활동 집단의 참여 여부에서는 교사관계와 학습활동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한편 김지예(2019)는 무용수업에 참여하는 중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성별, 학년, 참여 시간, 참여 기간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학교생활 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대인관계와 학습활동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평균 점수가 더 높았지만 유의하지 않았고 학교생활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평균 점수가 더 높았고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차화연(2018)이 일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성별과 학년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성별에서는 학교생활 만족도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평균 점수가 높았지만 학교생활 전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학교생활 만족도는 연구대상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신체활동이나 특정한 활동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 차이는 각각의 선행연구에서 모두 다

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음악수업 참여에 따른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예측하기 위한 선행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비확률적 표집방법(nonprobability sampling) 중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을 모집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은 2022년 G.광역시 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음악수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 350명이었다. 자료는 359부를 수집하였으나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된 9부를 제외한 총 350부(남=131, 여=219)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17.65세(SD=.87), 학년은 1학년(N=214, 61.1%), 2학년(N=43, 12.3%), 3학년(N=93, 26.6%)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균 음악참여 시간은 1.59시간(SD=.49), 학교 구분은 일반계(N=301, 86.0%), 특성화(N=49, 14.0%)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대상들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연구대상 특성(N=350)

변인	구분	참여자(명)	백분율(%)
성별	남	131	37.4
	여	219	62.6
나이	17세	214	61.1
	18세	43	12.3
	19세	93	26.6
학년	1학년	214	61.1
	2학년	43	12.3
	3학년	93	26.6
음악참여 시간	1시간	142	40.6
	2시간	208	59.4
학교 구분	일반계	301	86.0
	특성화	49	14.0
합계		350	100.0



## 2. 측정도구

이 연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구성내용은 음악흥미도 3요인 20문항, 학업적 자기효능감 3요인 28문항, 학교생활 만족도 6요인 25문항으로 총 15요인 73문항이었다<표 4>.

### 1) 음악흥미도

음악흥미도는 배성애(2000)의 음악흥미 검사와 Shaw와 Tomcala(1976)의 음악 태도 척도를 바탕으로 김향숙(2001)이 재구성한 음악흥미 척도를 이 연구의 목적과 연구대상들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조정은(2013)과 이인영(2015)의 연구에 사용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음악흥미도 척도는 음악태도 9문항, 음악선호 6문항, 음악경험 5문항으로 총 3요인 20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다.

### 2)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개발하고 김상희(2020)와 이수주와 이지연(2021)이 사용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과제난이도 선호 10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10문항, 자신감 8문항으로 총 3요인 28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다. 28문항 중 11문항은 역문항(2, 6, 7, 21, 22, 23, 24, 25, 26, 27, 28)으로 채점된다.

### 3)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는 김주연(2009)이 개발하고 이수진과 문혁준(2013), 장지언(2020)이 사용한 학교생활 만족도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교생활 만족도 척도는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 3문항, 대인관계 만족감 4문항,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4문항, 교육환경 만족감 4문항,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 4문항, 사회적지지 만족감 6문항으로 총 6요인 25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다.

<표 4> 설문지 구성 내용

변인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음악 흥미도	음악태도	1, 3, 4, 5, 6, 7, 8, 19, 20	9
	음악선호	2, 14, 15, 16, 17, 18	6
	음악경험	9, 10, 11, 12, 13	5
학업적 자기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1, 2*, 3, 4, 5, 6*, 7*, 8, 9, 10	10
	자기조절 효능감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0
	자신감	21*, 22*, 23*, 24*, 25*, 26*, 27*, 28*	8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	1, 2, 3	3
	대인관계 만족감	4, 5, 6, 7	4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8, 9, 10, 11	4
	교육환경 만족감	12, 13, 14, 15	4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	16, 17, 18, 19	4
	사회적지지 만족감	20, 21, 22, 23, 24, 25	6
<b>합계</b>			<b>73</b>

### 3.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각 변인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이하 CFA)과 Cronbach's  $\alpha$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CFA의 구조모형적합도는 표준화회귀계수(standard estimate,  $\beta$ )와 적합도 지수인  $\chi^2/df$ , CFI, TLI, RMSEA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표준화회귀계수( $\beta$ )는 .5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적합도 지수는  $\chi^2/df$  값 3이하, CFI와 TLI 값은 .9이상, RMSEA 값은 .08이하일 때 매우 좋은 적합도로 판별한다(홍세희, 2017; Kline, 2015).

그러나 모형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표준화회귀계수나 적합도 지수와 같은 통계적 수치와 함께 이론적 개념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홍세희, 2017). 이를 바탕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통계값의 경우에는 선행연구의 이론적 근거와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적합도 지수의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렸다.

#### 1) 음악 흥미도

음악흥미도 척도의 CFA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그 과정에서 음악태도의 1, 5, 6, 7, 20번 문항, 음악선호의 2, 14번 문항, 그리고 음악경험의 9, 13번 문항이 모형적합도,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 MI), 내용 타당도 등을 고려하여 삭제되었다. 삭제 후 최종문항의 표준화회귀계수( $\beta$ )는 .517부터 .751까지의 범위로 나타났고, 적합도 지수에서  $\chi^2/df$ 는 3.015( $\chi^2=123.606$ ,  $df=41$ ), CFI는 .937, TLI는 .915, RMSEA는 .076으로 나타났다. 표준화회귀계수( $\beta$ )는 .5이상, CFI와 TLI는 .9이상, RMSEA는 .08이하라는 기준값을 충족하였으므로 '매우 좋은 적합도'로 해석되고,  $\chi^2/df$ 는 기준값을 약간 벗어나 '수용할 만한 적합도'로 해석할 수 있다(Kline, 2015). 각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음악태도 .772, 음악선호 .756, 그리고 음악경험은 .660으로 나타났다.

<표 5> 음악 흥미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수	경로	측정변수	B	$\beta$	S.E	t	$\alpha$
음악태도	→	3	1.000	.655			
	→	4	1.146	.730	.101	11.389***	.772
	→	8	.946	.689	.087	10.879***	
	→	19	.990	.650	.096	10.364***	
→	15	1.000	.657				
음악선호	→	16	.936	.549	.107	8.737***	.756
	→	17	1.132	.687	.108	10.510***	
	→	18	1.160	.751	.103	11.205***	
음악경험	→	10	1.000	.517			.660
	→	11	1.677	.682	.206	8.151***	
	→	12	1.672	.682	.205	8.152***	
$\chi^2=123.606, df=41, CFI=.937, TLI=.915, RMSEA=.076$							

\*\*\* $p < .001$

## 2)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CFA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그 과정에서 과제난이도 선호의 2, 3, 6, 7번 문항, 자기조절 효능감의 11, 12번 문항, 그리고 자신감의 22, 27, 28번 문항이 모형적합도,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 MI), 내용 타당도 등을 고려하여 삭제되었다. 삭제 후 최종문항의 표준화회귀계수( $\beta$ )는 .643부터 .870까지의 범위로 나타났고, 적합도 지수에서  $\chi^2/df$ 는 2.440( $\chi^2=363.554, df=149$ ), CFI는 .944, TLI는 .935, RMSEA는 .064로 나타났다. 표준화회귀계수( $\beta$ )는 .5이상,  $\chi^2/df$ 는 3이하, CFI와 TLI는 .9이상, RMSEA는 .08이하라는 기준값을 충족하였으므로 ‘매우 좋은 적합도’로 해석할 수 있다(Kline, 2015). 각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과제난이도 선호는 .890, 자기조절 효능감은 .900, 그리고 자신감은 .903으로 나타났다.

<표 6>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수	경로	측정변수	B	$\beta$	S.E	t	$\alpha$
과제난이도 선호	→	1	1.000	.711			.890
	→	4	.935	.698	.076	12.252***	
	→	5	1.031	.763	.077	13.368***	
	→	8	1.072	.828	.074	14.432***	
	→	9	1.112	.796	.080	13.907***	
	→	10	.964	.758	.073	13.277***	
자기조절 효능감	→	13	1.000	.643			.900
	→	14	1.158	.653	.109	10.644***	
	→	15	1.386	.805	.110	12.585***	
	→	16	1.184	.780	.096	12.281***	
	→	17	1.330	.740	.113	11.782***	
	→	18	1.275	.729	.109	11.649***	
	→	19	1.064	.695	.095	11.212***	
	→	20	1.238	.789	.100	12.396***	
자신감	→	21	1.000	.811			.903
	→	23	.882	.793	.053	16.584***	
	→	24	.912	.853	.050	18.314***	
	→	25	.984	.870	.052	18.809***	
	→	26	.811	.714	.056	14.455***	

$\chi^2=363.554$ ,  $df=149$ , CFI=.944, TLI=.935, RMSEA=.064

\*\*\* $p<.001$

### 3)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CFA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그 과정에서 대인관계 만족감 4번 문항,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8번 문항, 교육환경 만족감 12번 문항,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 16번 문항, 사회적지지 만족감 20, 21, 22번 문항이 모형적합도,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 MI), 내용 타당도 등을 고려하여 삭제되었다. 삭제 후 최종문항의 표준화회귀계수( $\beta$ )는 .519부터 .916까지의 범위로 나타났고, 적합도 지수에서  $\chi^2/df$ 는 3.053( $\chi^2=366.310$ ,

$df=120$ ), CFI는 .923, TLI는 .901, RMSEA는 .077로 나타났다. 표준화회귀계수 ( $\beta$ )는 .5이상, CFI와 TLI는 .9이상, RMSEA는 .08이하라는 기준값을 충족하였으므로 ‘매우 좋은 적합도’로 해석되고,  $\chi^2/df$ 는 기준값을 약간 벗어나 ‘수용할 만한 적합도’로 해석할 수 있다(Kline, 2015). 각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 .817, 대인관계 만족감 .686,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806, 교육환경 만족감 .722,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 .639, 그리고 사회적지지 만족감은 .927로 나타났다.

<표 7>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수	경로	측정변수	B	$\beta$	S.E	t	$\alpha$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	→	1	1.000	0.826			
	→	2	0.820	0.655	0.066	12.449***	.817
	→	3	1.047	0.851	0.064	16.286***	
대인관계 만족감	→	5	1.000	0.581			
	→	6	1.138	0.704	0.114	9.979***	.686
	→	7	1.171	0.721	0.116	10.134***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	9	1.000	0.882			
	→	10	1.003	0.815	0.065	15.382***	.806
	→	11	0.646	0.592	0.058	11.152***	
교육환경 만족감	→	13	1.000	0.609			
	→	14	1.126	0.612	0.125	8.972***	.722
	→	15	1.378	0.826	0.131	10.511***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	→	17	1.000	0.519			
	→	18	1.218	0.667	0.152	8.028***	.639
	→	19	1.205	0.655	0.151	7.960***	
사회적지지 만족감	→	23	1.000	0.872			
	→	24	1.079	0.916	0.044	24.382***	.927
	→	25	1.098	0.913	0.045	24.241***	
$\chi^2=366.310, df=120, CFI=.923, TLI=.901, RMSEA=.077$							

\*\*\* $p < .001$

## 4. 연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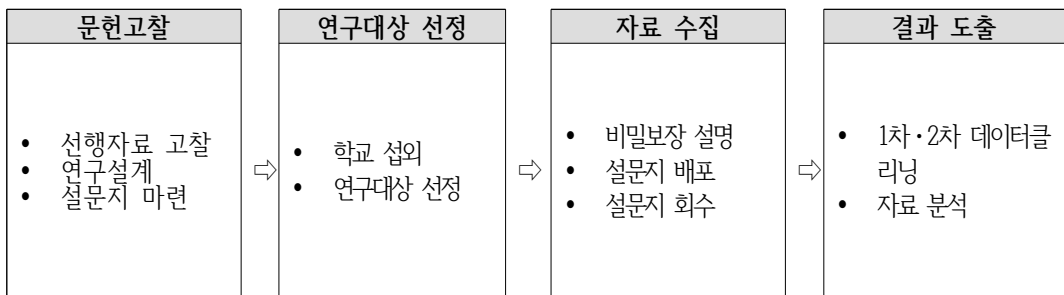
이 연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고찰, 연구대상 선정,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그림 3].

첫째, 문헌고찰 단계에서는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련된 문헌과 자료들을 고찰했다. 이를 통해 각 변인 또는 두 변인 이상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당위성과 논리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이론적 모델과 가설을 설정하고 각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마련하였다.

둘째, 연구대상 선정 단계에서는 먼저 G.광역시 고등학교 관계자와 연락하여 학교를 섭외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예비 연구대상 및 학교 관계자, 교사, 학부모에게 연구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셋째,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을 중심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을 실시하기 전에는 비밀보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문지의 자기평가기입법(self-report)에 따라 응답하도록 안내하였다. 응답이 완료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그 자리에서 회수하여 학교 관계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즉시 밀봉하였다.

넷째, 결과 도출 단계에서는 1차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을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 중 일관된 응답이나 중복된 응답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제외하였다. 이후 2차 데이터 클리닝에서는 코딩(coding)된 자료 중 불성실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자료를 마련하였다. 끝으로 최종 자료는 연구목적과 방법에 맞는 통계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3] 연구 절차

## 5. 자료처리

이 연구는 SPSS 24버전과 AMOS 24버전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연구대상들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고,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치(descriptive statistics)를 산출하였다. 자료의 정규성은 평균(mean),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왜도(skewness), 그리고 첨도(kurtosis) 값을 확인하였다. 이때 왜도는 절대 값이 3이하일 때, 첨도는 절대 값이 8이하일 때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Kline, 2015).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검사와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이때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적합도 지수들은  $\chi^2/df$  값이 3 이하일 때, CFI와 TLI는 .90 이상일 때, RMSEA와 SRMR은 .08 이하일 때 매우 좋은 적합도로 판단하였다(홍세희, 2017; Kline, 2015).

셋째,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리고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고 다중공선성의 문제 여부를 파악하였다. 이때  $r$ 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상관을 가지고 +값은 정적 상관, -값은 부적 상관인 것으로 해석하였다(Kline, 2015).

넷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t$ -test)과 일원변량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일원변량분석의 사후검증은 Scheffe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섯째,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리고 학교생활 만족도의 구조적 관계와 경로계수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e Equation Model, SEM)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모형 검증을 진행하였다.

여섯째, 음악흥미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했다. Bootstrapping의 복원추출 횟수는 500번으로 설정하고 이때 통계적 유의성은 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s



의 95% 신뢰구간에서 Two-tailed Significance를 이용하여 확인했다. 이때 신뢰구간 안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김응준, 이남주, 2013).

끝으로 이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노경섭, 2014).

## IV. 연구결과

###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

#### 1) 성별에 따른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세 변인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음악흥미도의 음악태도 ( $t=4.906, p<.001$ ),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과제난이도 선호 ( $t=5.687, p<.001$ ), 자기조절 효능감 ( $t=2.071, p<.05$ ), 자신감 ( $t=4.052, p<.001$ ), 그리고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 $t=3.942, p<.001$ )은 성별의 차이가 있었다.

반면 음악흥미도의 음악선호 ( $t=-.451, p>.05$ )와 음악경험 ( $t=-1.716, p>.05$ ), 학교생활 만족도의 대인관계 만족감 ( $t=-.413, <p>.05$ ), 교육환경 만족감 ( $t=-1.012, p>.05$ ), 사회적지지 만족감 ( $t=-1.337, p>.05$ )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평균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성별에 따른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

요인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음악태도	남	131	3.939	.711	4.906***
	여	219	3.510	.835	
음악흥미도 음악선호	남	131	2.693	.932	-.451
	여	219	2.740	.951	
음악경험	남	131	3.756	.711	-1.716
	여	219	3.898	.776	

학업적 자기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남	131	3.360	.581	5.687***
		여	219	2.969	.647	
	자기조절 효능감	남	131	3.514	.714	2.071*
		여	219	3.341	.784	
	자신감	남	131	3.455	.914	4.052***
		여	219	2.981	1.137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	남	131	3.094	.964	1.008
		여	219	2.991	.906	
	대인관계 만족감	남	131	3.796	.667	-.413
		여	219	3.830	.758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남	131	3.601	.723	3.942***
		여	219	3.234	.904	
	교육환경 만족감	남	131	3.229	.900	-1.012
		여	219	3.326	.843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	남	131	3.305	.658	1.018
		여	219	3.224	.763	
사회적지지 만족감	남	131	3.781	.753	-1.337	
	여	219	3.896	.797		

\*\*\* $p < .001$ , \* $p < .05$

## 2) 학년에 따른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

고등학생의 학년에 따른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사후검사 Scheffe를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구체적으로 학년에 따른 세 변인의 하위요인을 살펴본 결과 음악흥미도의 음악태도( $t=16.509$ ,  $p < .001$ )와 음악선호( $t=3.120$ ,  $p < .05$ ),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과제난이도 선호( $t=5.818$ ,  $p < .01$ ), 자기조절 효능감( $t=4.043$ ,  $p < .05$ ), 자신감( $t=7.385$ ,  $p < .05$ ), 그리고 학교생활 만족도의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t=3.255$ ,  $p < .05$ ), 교육환경 만족감( $t=8.910$ ,  $p < .001$ ), 사회적지지 만족감( $t=6.156$ ,  $p < .01$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반면 음악흥미도의 음악경험( $t=3.000$ ,

$p > .05$ ), 학교생활 만족도의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 $t = 2.040, p > .05$ ), 대인관계 만족감( $t = .771, p > .05$ ),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 $t = 1.097, p > .05$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된 하위요인 중 음악흥미도의 음악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그리고 학교생활 만족도의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교육환경 만족감, 사회적지지 만족감은 *Scheffe* 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9> 학년에 따른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

요인	집단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Scheffe	
음악 흥미도	음악태도	1학년	214	3.493	.826	16.509***	① < ③ < ②
		2학년	43	4.163	.657		
		3학년	93	3.852	.730		
	음악선호	1학년	214	2.625	.916	3.120*	-
		2학년	43	2.808	.861		
		3학년	93	2.906	1.015		
	음악경험	1학년	214	3.775	.744	3.000	-
		2학년	43	3.855	.718		
		3학년	93	4.003	.778		
학업적 자기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1학년	214	3.064	.646	5.818**	①, ③ < ②
		2학년	43	3.426	.586		
		3학년	93	3.090	.655		
	자기조절 효능감	1학년	214	3.325	.743	4.043*	① < ②
		2학년	43	3.660	.629		
		3학년	93	3.474	.835		
	자신감	1학년	214	3.091	1.011	7.385*	①, ③ < ②
		2학년	43	3.740	.854		
		3학년	93	3.045	1.251		
학교 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	1학년	214	3.109	.916	2.040	-
		2학년	43	2.891	1.015		
		3학년	93	2.910	.904		
	대인관계 만족감	1학년	214	3.779	.732	.771	-
		2학년	43	3.884	.666		
		3학년	93	3.875	.737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1학년	214	3.329	.852	3.255*	①, ③ < ②
		2학년	43	3.682	.646		
		3학년	93	3.326	.934		

교육환경	1학년	214	3.296	.796		
만족감	2학년	43	2.829	.947	8.910***	② < ①, ③
	3학년	93	3.487	.908		
학교규칙 및	1학년	214	3.291	.697		
특별활동	2학년	43	3.116	.756	1.097	-
	3학년	93	3.233	.774		
사회적지지	1학년	214	3.748	.803		
	2학년	43	3.884	.697	6.156**	① < ③
만족감	3학년	93	4.082	.723		

\*\*\* $p < .001$ , \*\* $p < .01$ , \* $p < .05$

Note: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 3) 음악수업 참여 시간에 따른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

고등학생의 주간 음악수업 참여 시간에서는 주간시간을 의미하며,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 (Independent  $t$ -test)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구체적으로 주간 음악수업 참여 시간에 따른 세 변인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음악흥미도의 음악선호( $t=2.845$ ,  $p<.05$ ), 그리고 학교생활 만족도의 교육환경 만족감( $t=3.451$ ,  $p<.05$ ), 사회적지지 만족감( $t=4.021$ ,  $p<.05$ )은 한 주에 2시간 동안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보다 1시간 동안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평균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 과제난이도 선호( $t=-2.080$ ,  $p<.05$ )와 자신감( $t=-2.377$ ,  $p<.05$ )은 다른 변인과는 상반된 내용으로 한 주에 1시간 동안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2시간 동안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보다 평균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1시간이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표 10> 음악수업 참여 시간에 따른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

요인		시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음악흥미도	음악태도	1	142	3.607	.838	-1.199
		2	208	3.714	.801	
	음악선호	1	142	2.845	.968	2.025*
		2	208	2.638	.918	
	음악경험	1	142	3.886	.793	.830
		2	208	3.817	.728	
학업적 자기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1	142	3.028	.621	-2.080*
		2	208	3.175	.665	
	자기조절 효능감	1	142	3.442	.772	.733
		2	208	3.381	.757	
	자신감	1	142	2.993	1.139	-2.377*
		2	208	3.271	1.030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	1	142	3.096	.903	1.112
		2	208	2.984	.944	
	대인관계 만족감	1	142	3.862	.728	.946
		2	208	3.787	.723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1	142	3.329	.881	-.770
		2	208	3.401	.843	
	교육환경 만족감	1	142	3.451	.862	2.911**
		2	208	3.179	.852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	1	142	3.298	.765	.934
		2	208	3.224	.697	
사회적지지 만족감	1	142	4.021	.726	3.366**	
	2	208	3.739	.800		

\*\* $p < .01$ , \* $p < .05$

#### 4) 학교 구분에 따른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

고등학생의 학교 구분에 따른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구체적으로 학교 구분에 따른 세 변인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음악흥미도의 음악태도( $t=5.046, p<.001$ )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과제난이도 선호( $t=2.380, p<.05$ ), 그리고 학교생활 만족도의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 $t=-3.466, p<.001$ )은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만족도로 나타나는 양상은 달랐는데, 일반계고가 높은 것은 음악흥미도의 음악태도( $t=5.046, p<.001$ )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과제난이도 선호( $t=2.380, p<.05$ )였으며, 특성화고에서는 학교생활만족도의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이 부정적이었다.

<표 11> 학교 구분에 따른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

요인		시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음악흥미도	음악태도	일반계	301	3.757	.781	5.046***
		특성화	49	3.143	.840	
	음악선호	일반계	301	2.721	.956	-.060
		특성화	49	2.730	.869	
	음악경험	일반계	301	3.875	.747	1.824
		특성화	49	3.663	.782	
학업적 자기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일반계	301	3.148	.662	2.380*
		특성화	49	2.912	.537	
	자기조절 효능감	일반계	301	3.410	.782	.253
		특성화	49	3.380	.637	
	자신감	일반계	301	3.201	1.106	1.850
		특성화	49	2.894	.892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	일반계	301	2.961	.931	-3.466**
		특성화	49	3.449	.798	

대인관계 만족감	일반계	301	3.814	.727	-.204
	특성화	49	3.837	.717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일반계	301	3.378	.871	.335
	특성화	49	3.333	.782	
교육환경 만족감	일반계	301	3.275	.880	-.797
	특성화	49	3.381	.770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	일반계	301	3.227	.720	-1.748
	특성화	49	3.422	.742	
사회적지지 만족감	일반계	301	3.845	.792	-.496
	특성화	49	3.905	.723	

\*\*\* $p < .001$ , \*\* $p < .01$ , \* $p < .05$



## 2.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

### 1) 기술통계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검증하기에 앞서 정규분포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규분포 조건은 절대 값 기준으로 왜도 3이하, 첨도 8이하일 때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Kline, 2015).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구체적으로 평균의 범위는 2.722 ~ 3.853이었으며 표준편차의 범위는 .650 ~ 1.082로 나타났다. 또한 왜도의 범위는 -.576 ~ .195였으며 첨도는 -.763 ~ .785의 범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기술통계 값은 기준치에 충족하여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2> 기술통계 결과

요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음악흥미도	음악태도	3.671	.817	-.318	-.216
	음악선호	2.722	.943	.195	-.316
	음악경험	3.845	.755	-.439	-.249
학업적 자기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3.115	.650	-.083	-.297
	자기조절 효능감	3.406	.762	-.393	.242
	자신감	3.158	1.082	-.149	-.763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	3.030	.928	-.056	-.052
	대인관계 만족감	3.817	.725	-.492	.741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3.371	.858	-.224	-.356
	교육환경 만족감	3.290	.865	-.100	.103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	3.254	.726	-.213	.785
	사회적지지 만족감	3.853	.782	-.576	.780

## 2) 상관관계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세 변인 간, 그리고 하위요인 간 관계와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r$ 을 이용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은 각 변인과 하위요인의 상관관계가 .80보다 낮은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Kline, 2015).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3> 및 <표 14>와 같다. 구체적으로 첫째, 음악흥미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r=.345$ )과 학교생활 만족도( $r=.405$ )와 .01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 만족도( $r=.463$ )과 .01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 변인의 하위요인( $r=.069\sim.559$ )은 대부분 .01과 .05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넷째, 각 변인 간의 상관계수 범위는 .345~.463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분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
음악흥미도	1		
학업적 자기효능감	.345**	1	
학교생활 만족도	.405**	.463**	1

\*\* $p<.01$

<표 14>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음악 흥미도	1	1											
	2	.497**	1										
	3	.536**	.538**	1									
학업적 자기효능감	4	.334**	.204**	.238**	1								
	5	.335**	.269**	.226**	.431**	1							
	6	.224**	.069	.166**	.241**	.381**	1						
학교생활 만족도	7	.249**	.135*	.202**	.276**	.225**	.118*	1					
	8	.398**	.093	.381**	.153**	.333**	.281**	.471**	1				
	9	.402**	.237**	.269**	.377**	.559**	.463**	.378**	.518**	1			
	10	.264**	.143**	.229**	.177**	.265**	.104	.526**	.448**	.416**	1		
	11	.308**	.160**	.200**	.256**	.243**	.103	.549**	.431**	.366**	.544**	1	
	12	.406**	.157**	.374**	.208**	.387**	.237**	.353**	.718**	.446**	.409**	.393**	1

\*\* $p < .01$ , \* $p < .05$

Note: 1. 음악태도, 2. 음악선호, 3. 음악경험, 4. 과제난이도 선호, 5. 자기조절 효능감, 6. 자신감, 7.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감, 8. 대인관계 만족감, 9.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10. 교육환경 만족감, 11.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만족감, 12. 사회적지지 만족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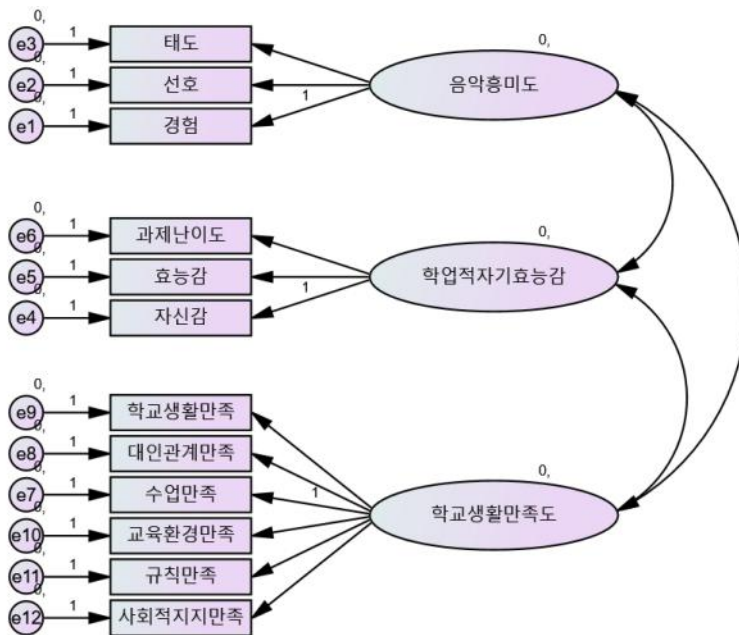
### 3)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을 진행하기에 앞서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리고 학교생활 만족도의 변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을 실시한 결과는 <표 15>에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도식은 [그림 4]와 같다. 구체적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chi^2/df$ 는 3.058, CFI는 .940, TLI는 .912, RMSEA는 .077, SRMR은 .057로 나타났다. 따라서  $\chi^2/df$ 는 기준치(3이하)에 근사하기 때문에 ‘수용할 만한 적합도’로 해석되고, CFI와 TLI는 .9이상, RMSEA와 SRMR은 .08이하라는 기준값을 충족하였으므로 ‘매우 좋은 적합도’로 해석할 수 있다(Kline, 2015).

<표 15>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구분	$\chi^2/df$	CFI	TLI	RMSEA	SRMR
적합도 지수	3.058 ( $\chi^2=137.596, df=45$ )	.940	.912	.077 (90% CI = .062, .092)	.057



[그림 4] 측정모형 분석 결과

#### 4) 구조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에서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경로계수의 값을 확인한 결과는 <표 16>에 제시하였으며 [그림 5]에는 연구모형의 표준화회귀계수 값을 표기하였다.

먼저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chi^2/df$ 는 2.411, TLI는 .905, CFI는 .937, RMSEA는 .078로 확인되어 모든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기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chi^2/df$ 는 3이하, CFI와 TLI는 .9이상, RMSEA는 .08이하라는 기준값을 충족하였으므로 ‘매우 좋은 적합도’로 해석된다(Kline,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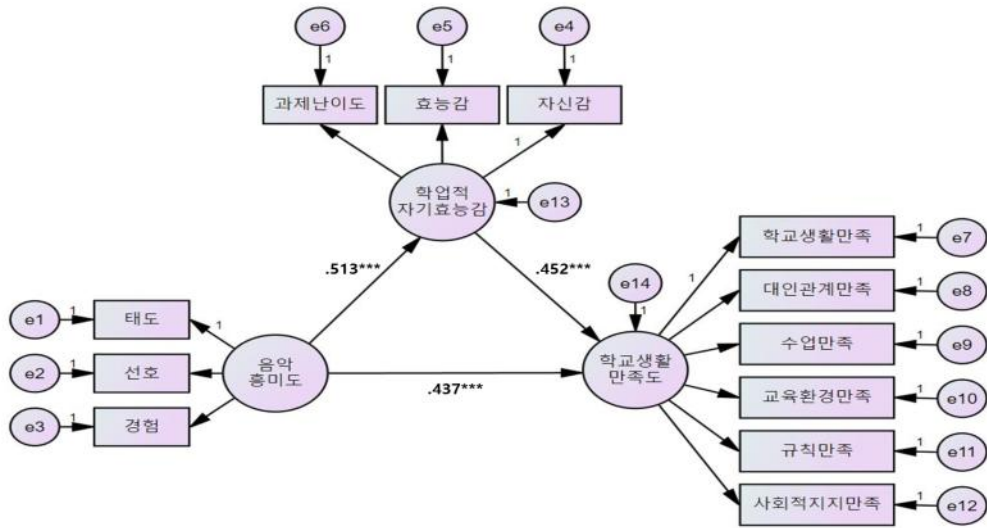
다음으로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고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흥미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정(+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513, p<.001$ ). 따라서 가설2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음악흥미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둘째, 음악흥미도는 학교생활 만족도에 정(+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452, p<.001$ ). 따라서 가설3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음악흥미도는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 만족도에 정(+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437, p<.001$ ). 따라서 가설4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표 16>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및 가설 검증 결과

잠재변수	경로	측정변수	B	$\beta$	S.E.	t	검증 결과
음악흥미도	→	학업적 자기효능감	.469	.513	.081	5.816***	채택
음악흥미도	→	학교생활 만족도	.329	.452	.073	4.525***	채택
학업적 자기효능감	→	학교생활 만족도	.349	.437	.090	3.894***	채택

$\chi^2/df=2.411(\chi^2=94.056, df=39), TLI=.905, CFI=.937, RMSEA=.078$

\*\*\* $p<.001$



[그림 5] 구조모형 분석 결과

### 5) 매개효과 검증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음악흥미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구체적으로 Lower Bounds는 .036이었고 Upper Bounds는 .237이었다. 즉, 95% 신뢰구간에서 .036 ~ .237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보이고 있어 0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응준, 이남주, 2013). 따라서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들의 음악흥미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완전매개(간접효과)로 학교생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16, p < .01$ ).

<표 17>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및 가설 검증 결과

매개효과 경로	$\beta$	S.E.	95% CI	
			Lower Bounds	Upper Bounds
음악흥미도→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	.116**	.047	.036	.237

\*\* $p < .01$

## V. 논 의

이 연구는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 359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데이터클리닝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350명의 자료를 SPSS와 AMO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대응표본  $t$ -검정, 일원변량분석, *Scheffe*,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측정모형 분석, 구조모형 분석, 그리고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를 가설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음악흥미도의 차이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음악흥미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학년, 주간 음악수업 참여 시간, 학교 구분 모두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에서 음악흥미도의 하위요인 중 음악태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년에는 음악태도와 음악선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사후분석에서는 음악태도가 1학년, 3학년, 2학년 순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음악선호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간 음악수업 참여 시간에서 음악선호는 주간 음악수업에 2시간 참여하는 학생보다 1시간 참여하는 학생이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학교 구분에서 음악태도는 특성화보다 일반계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음악흥미도에서 음악태도와 음악선호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지만 음악경험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흥미도가 성별(박혜수, 2018; 이미래, 2021), 나이(박혜수, 2018; 한다희, 2017), 참여 수준(이영인, 2014; 한다희, 2017) 등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밝힌 대부분의 선행연구를 지지한다. 한편 음악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연구대상들이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시간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음악경험은 개인이 음악활동에 참여하면서 타인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느끼는 정서나 개인적인 음악적 성향의 만족감 등을 통해 음악흥미도로 연결된다(Shaw & Tomcala, 1976). 그러나 이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이 주간 음악에 참여하는 시간은 최소 1시간에서 최대 2시간이었다. 즉, 연구대상들은 물리적으로 부족한 음악참여 시간으로 인해 음악을 통한 사회적 교류나 음악적 성향의 만족감이 충족되지 않아 음악경험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고려할 때 고등학생의 음악흥미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풍족한 음악경험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음악적 성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간 음악참여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

연구대상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과 학년은 모든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간 음악수업 참여 시간과 학교 구분에서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년에서는 2학년보다 1학년과 3학년의 과제난이도 선호와 자신감이 높게 나타났고, 2학년보다 1학년의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간 음악수업 참여 시간에서 과제난이도 선호와 자신감은 음악수업에 2시간 참여하는 학생보다 1시간 참여하는 학생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학교 구분에서 과제난이도 선호는 특성화보다 일반계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주간 음악수업 참여 시간과 학교 구분보다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검증한 선행연구(박원우, 2021; 박은애, 2015; 이근임, 2019)는 대부분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한편 학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박은애(2015)는 1학년, 3학년, 2학년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다고 하였고, 이근임(2019)은 1학년, 2학년, 3학년 순으로 높은 평균 점수가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이는 학년에 따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확인한 이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하지만 학년별 평균 점수를 비교하여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두 개의 선행연구와 이 연구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어떤 집단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고 높은지는 일관성 있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년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것보다 다양한 상황과 조건들이 상호작용한 결과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을 예측하게 한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주간 음악참여 시간과 학교 구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였으나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두 가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한 추가적인 검증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

고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학년, 주간 음악수업 참여 시간, 학교 구분 모두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에서 학교생활 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년에서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교육환경 만족감, 그리고 사회적지지 만족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후분석을 진행한 결과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은 1학년과 3학년보다 2학년이 높게 나타났고, 교육환경 만족감은 2학년보다 1학년과 3학년이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지지 만족감은 1학년보다 3학년이 높게 나타났다. 주간 음악수업 참여 시간에서 교육환경 만족감과 사회적지지 만족감은 주간 음악수업에 2시간 참여하는 학생보다 1시간 참여하는 학생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학교 구분에서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만족감은 일반계보다 특성화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성별과 학년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는 몇몇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먼저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선행연구(김지예, 2019; 이새롬, 2019; 차화연, 2018)들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평균 점수가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지예(2019)와 안정민(2019)은 학년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이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

다. 반면 주간 음악참여 시간과 학교 구분에 따른 차이는 선행연구와 상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김지예(2019)의 연구에서는 음악 참여 시간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음악 참여 시간과 학교 구분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에서 이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가 불일치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속연구에서 음악 참여 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 2. 변인 간 구조적 관계

### 1) 음악흥미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의 가설 2-1에 따라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음악흥미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음악흥미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음악흥미도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음악 분야에서 음악흥미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음악활동의 효과를 검증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이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은 음악활동에 참여하며 경험한 즐거움으로 인해 음악흥미도가 향상된다(김향숙, 2001). 이처럼 향상된 음악흥미도는 음악활동을 지속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음악에 대한 성취감을 높이고(태진미, 2011) 자기효능감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킨다(김아영, 박인영, 2001; Bandura, 1986). 이러한 자기효능감이 학업 상황에 적용되면 점차 도전적인 난이도의 과제를 선호하거나(전윤경, 2015) 효과적인 자기조절(김혜정, 양은아, 2013)을 통해 높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발휘하게 된다.

이처럼 음악흥미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음악활동을 중심으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두 변인의 관계는 선행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예측되었을 뿐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시점에 이 연구는 두 변인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앞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설명한

것처럼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고등학생들의 음악흥미도는 음악에 대한 성취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학업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발휘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를 고려할 때 학교 현장에서는 음악수업을 단순히 예술 활동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교육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고등학생들이 각박한 입시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자유로운 음악활동에 참여하면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2) 음악흥미도가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설 2-2에 따라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음악흥미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음악흥미도는 학교생활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음악흥미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음악흥미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와 유사하게 선행연구를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된 사례가 부족하다. 그러나 음악활동이 학교생활 만족도를 효과적으로 높인다고 밝힌 선행연구(강선영, 2016; 나현이, 2014; 오주리, 2020)를 토대로 두 변인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생활 만족도에는 학교생활 전반, 대인관계, 수업과 학습활동, 교육환경, 학교규칙 및 특별활동, 사회적지지 만족감이 포함되는데(김주연, 2009), 이러한 만족감들은 음악활동이 지닌 사회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의 교육적 효과를 통해 충족될 수 있다(나현이, 2014). 즉, 고등학생들은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다른 학생들과 의사소통하고 집단 소속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면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된다는 것이다(오주리, 2020). 이러한 효과를 지닌 음악활동은 음악흥미도를 향상시키고 이는 다시 음악활동을 지속하는 힘으로 작용한다(김향숙, 2001). 이 과정은 학교생활 만족도까지 연결되어 음악활동, 음악흥미도, 그리고 학교생활 만족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이를 고려할 때 고등학생의 음악활동 참여 목적은 악기나 음악활동을 배우는 것에서부터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의 소속감을 키우는 것까지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음악활동의 사회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3)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설 2-3을 검증하기 위해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 만족도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 만족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들의 지지를 받는다(원주연, 2022; 장두현, 2019; 최정희, 2021). 유사한 맥락으로 오윤진과 이순민(2013)의 연구에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생들이 학습활동, 교우활동, 기타 학교행사 등에서 만족감을 느껴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학교생활 적응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탐색되었다. 즉, 학습자의 개인적 변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 적응의 12.5%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의 지지를 받는 연구가설 2-3의 결과는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업적 측면에서 자기를 조절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과 스스로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남긴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은 고등학생들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학습에서 성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평소에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더라도 급격한 학습환경의 변화로 인해 위축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이들의 학교적응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이들이 새로운 학교 분위기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충분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발판이 되어 결과적으로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 3. 음악흥미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가설 3-1에 따라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음악흥미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음악흥미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음악흥미도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어 결과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 변인의 관계는 음악활동이 음악흥미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전윤경, 2015; 태진미, 2011)하거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원주연, 2022; 장두현, 2019)들의 간접적인 지지를 받는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독립변인과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로 작용한다는 것이 검증된 바 있다(고정리, 2020; 김순옥, 2018; 윤성호, 2021).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통해 음악 활동의 효과로 밝혀진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리고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 변인은 이론적으로 서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질적연구로만 다루어지거나 단편적으로 두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왔다. 이러한 시점에 이 연구는 세 변인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음악 수업이 확대되어야 할 이유와 앞으로 나아가 갈 방향에 대한 두 가지 시사점을 남긴다. 첫째, 고등학생들의 음악 수업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효율적인 교육 수단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둘째, 고등학교 음악 수업은 학생들의 높은 음악흥미도를 유발할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어 결과적으로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음악흥미도를 충분히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적 가치를 지닌 음악 수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음악 수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확대하는 체계적인 지원과 학생들의 음악흥미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외에도 음악 교사의 개인 차원의 노력이 어우러져야 한다. 이를 통해 고등학생들이 음악 수업에 참여하면서 음악에 대한 즐거움과 학업 및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경험하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 VI. 결론 및 제언

### 1.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세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세 가지 가설은 첫째,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학년, 주간 음악참여 시간, 학교 구분)에 따른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리고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둘째,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음악흥미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만족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셋째,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음악흥미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가설 1-1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음악흥미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학교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리고 학교생활 만족도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학년, 주간 음악참여 시간, 학교 구분)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가설 2-1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음악흥미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음악흥미도는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즉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음악흥미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 만족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설 3-1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의 음악흥미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따라서 음악흥미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제언

첫째,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시간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음악흥미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주간 음악수업 참여 시간에 따른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각 변인의 하위요인에서 부분적인 차이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들의 높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 만족도를 위해 주간에 얼마나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확인하는 것에는 제한된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등학생들에게 적절한 음악수업의 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것만큼 학업과 학교생활 적응 또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다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시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음악흥미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면 고등학생들이 음악수업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고등학생들의 음악활동을 통해 향상된 음악흥미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험연구와 양적연구를 통합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는 대부분 음악활동이 음악흥미도(이미래, 2021; 조성아, 2019), 학업적 자기효능감(이경민, 2015; 이혜승, 2017), 학교생활 만족도(강선영, 2016; 오주리, 2020)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검증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즉, 음악활동을 통해 향상된 음악흥미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즉,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음악활동이 음악흥미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과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활동을 통해 향

상된 음악흥미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음악활동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이들의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를 측정하여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선행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예측해왔던 음악활동의 효과를 객관적이고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의 음악흥미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배성애(2000)의 음악흥미 검사와 Shaw와 Tomcala(1976)의 음악태도 척도를 바탕으로 김향숙(2001)이 재구성한 음악흥미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음악 분야에서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2022년을 기준으로 타당화된 지 20년 이상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음악흥미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재구성하여 타당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청소년들의 음악흥미도를 측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음악에 대한 흥미가 청소년들의 심리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객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선영(2016).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기악동아리활동이 음악흥미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제주도 내 중학생 대상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계선자, 이정우, 김명자, 박미석, 유을용(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실태 및 학교생활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2), 57-72.
- 고복순, 김영혜(2011). 중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의식 성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효과. **동서정신과학**, 14(2), 29-42.
- 교육부(2015). **2015 추진계획안**.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16). **2016 학교추진계획**.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18). **2018 학교기본 계획**. 세종: 교육부.
- 구아름(2013). 청소년의 풋살 참여가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군재환, 김경희(2013).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5, 31-57.
- 김미경(2000).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그 결정요인**.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미숙, 이미연(2017). 다문화 음악교육의 관점에서 본 고등학교 ‘음악과 생활’ 교과서 아시아 음악 분석 연구. **음악교육공학**, 32, 129-149.
- 김미영, 조선화(2018).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청소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놀이치료연구-한국놀이치료학회**, 21(1), 107-124.
- 김병성(1995). **효과적인 학교학습 풍토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김상희(2020). 일개 대학 RN-BSN 과정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직무 스트레스. **국가위기관리학회보**, 9(1), 46-59.
- 김성옥(2009). 중국 조선족 부모별거 청소년이 지각한 주양육자의 양육행동과 심

- 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소리, 문소영(2018). 창작음악극 중심의 음악치료가 제3국 출생 탈북아동의 학교생활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예술연구**, 21, 279-299.
- 김아영, 박인영(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39(1), 95-123.
- 김아영(2012). 교사전문성 핵심요인으로서의 교사효능감. **교육심리연구**, 26(1), 63-84.
- 김은지(2019).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자아 탄력성 향상을 위한 단기 노래 심리 치료프로그램 적용사례.**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주연(2009).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김지예(2019). **중학교 무용수업 참여학생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진숙, 이미숙(2012). ‘이수(履修)’를 중심으로 한 교과 집중이수제 분석과 발전 방안 탐색. **교육과정연구**, 30(1), 125-149.
- 김향란(2002). **아동의 성격유형과 학교생활 만족도와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향숙(2001). **음악적성 및 음악흥미와 정서지능과의 관련성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 김향숙, 신동주(2017). 유아의 음악적 흥미 검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연구**, 37(2), 33-55.
- 김혜정, 양은아(2013).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또래 관계 기술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9(4), 75-96.
- 나현이(2014). **교육부 지원 학생 오케스트라 활동이 중학교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남혜선(2009).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합주활동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노경섭(2014).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분석: SPSS & AMOS 21**. 서울: 한빛아카데미.
- 노원재(2007). **청소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가영(2015). **이야기 음악 만들기 수업이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 박명숙(2018). 대학 음악전공 수업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음악교육공학**, 37, 1-16.
- 박원우(2021).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중학생의 그릿과 감성지능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은애(2015). **중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가톨릭관동대학교 대학원.
- 박종열(2020).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지지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학업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검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박혜수(2018). **가정의 음악적 환경이 중학생의 음악흥미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배성애(2000). **음악적성 및 음악흥미와 음악성취도간의 관계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배하은(2020). **주제중심 통합교육을 적용한 국악수업이 고등학생의 국악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주희(2019).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밴드중심 음악중재 사례**.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 권덕원(2006).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 신재균(2018). **중학생의 방과 후 학교스포츠클럽 참여가 학업적 정서조절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안정민(2019). **고등학교 미용 도제교육인식이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만족도에**

-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안진형(2011). 음악치료와 활용 방법에 대한 연구 :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특별 수업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윤진, 이순민(2013). 시각장애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7(2), 229-252.
- 오주리(2020). 음악 동아리 활동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지역 고등학생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원주연(2022). 대학 신입생들의 전공선택 동기, 자기주도 학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2(2), 89-104.
- 원초롱(2021). 이해중심 교육과정과 맞춤형 수업의 적용을 통한 초등학교 통합학급의 음악과 수업 방안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8(1), 79-102.
- 유상구(2000). 체육수업과 여가활동의 연계지도가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윤진광(2019). 힙합음악을 활용한 분노조절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부적응 청소년들의 분노감소에 미치는 영향 : 기숙형 치료재활센터 입교생을 대상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경민(2015). 스캠퍼(SCAMPER) 기법을 활용한 음악수업이 고등학생의 학습동기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근임(2019). 중·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행복감과 희망에 미치는 영향 및 성, 부모 생존형태와 가족건강성의 조절효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대진대학교 대학원.
- 이미래(2021). 킵타 수업이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음악적 흥미도와 리듬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봉원(2019). 교사의 의사소통 및 리더십 유형에 따른 중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유능감, 자기조절능력의 차이.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이새롬(2019). **미용전공 고등학생의 창의적 인성과 진로포부 수준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 이수진, 문혁준(2013). **중학생의 자기통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및 학교생활 만족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2(6), 587-598.
- 이순주, 이지연(2021).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정서조절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9), 805-820.
- 이연희(2014). **초등학생의 표현활동 수업 참여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영인(2014).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음악흥미도가 음악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인영(2015). **음악 동아리 활동이 중학생의 음악 흥미도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하성(2015). **대안학교 청소년과 일반학교 청소년의 학업소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만족도 비교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두현(2019). **미용전공대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4년제 대학생을 중심으로**. **미용예술경영연구**, 13(1), 89-109.
- 장신국(2002). **대안학교 고교생과 일반계 고교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비교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지언(2022). **일부 지역 남자 고등학생들의 진로 스트레스와 구강건강관련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6(1), 95-104.
- 장철, 신현석(2016). **음악청취가 학업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대한통합의학회지**, 4(3), 31-37.
- 전윤경(2015). **악기연주 중심의 음악치료 활동이 중도시각장애인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 정규태(2009).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형태와 학업스트레스 및 학업적자기효능감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정승원(2015). **합창음악교육이 초등학생의 대인관계와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교 5, 6학년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원식, 이상로, 이성진(1982). **현대교육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 정혜진(2016). **고등학교 음악 동아리 활동이 학교생활 만족도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서울과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성아(2019). **오케스트라 활동이 중학생의 음악흥미도 및 음악의 생활화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윤경(2015). **음악-미술 통합수업이 초등학교 저학년 음악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정은(2013). **중학생의 음악흥미와 학교적응의 관계: 정서지능과 사회적 기술의 중다매개효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주현정(1998).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차화연(2018). **고등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변혁적 지도성과 학습동기 및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상미(2003).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 문화와 학생의 학교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옥순(2015). **고등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 부모의 지지, 교사-학생관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최정희(2021). **중학생의 학업정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조절 학습 능력,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최진호(2012).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학업성취요인 분석 및 전공실기성취도와 전체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음악교육연구*, 41(1), 89-111.
- 태진미(2011). **영재의 유, 아동기 음악경험 및 음악 흥미도와 창의성의 관계**. 미간

- 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다희(2017). **중학생의 음악 사교육 경험에 따른 음악흥미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상철, 조혜련(2004).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실업계고등학교 내 학업부진아의 학교생활적응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1), 39-54.
- 한수정, 한경훈(2014). 청소년의 음악문화활동, 교우 및 교사관계, 자아효능감이 음악교과 흥미와 성취에 미치는 효과. **음악교육연구**, 43(4), 211-237.
- 한주희(2000). **인간관계 집단상담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문영(2015). **방과후학교 기악활동이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세희(2017).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초이론과 적용**. 서울 : 박영사.
- 홍재운, 조선희(2018). 뇌파분석을 기반으로 한 음악 감상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 연구. **교과교육연구**, 11(2), 33-45.
- 황진숙(1995). **교사의 역할에 따라 선호되는 특성과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Abeles, H. F., Hoffer, C. F., Hoffer, C. R., & Klotman, R. H. (1994). *Foundations of music education*. Boston: Cengage Learning.
- Allport, G. W.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Y: Holt, Rinehart, & Winston.
- Allport, G. W. (1968).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Mass.: Addison-Wesley.
- Bandura, A. (1986). The explanatory and predictive scope of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3), 359-373.
- Bandura, A. (1995). Exercise of personal and collective efficacy in changing societies. *Self-efficacy in Changing Societies*, 15, 1-334.
- Denac, O. (2008). A case study of preschool children's musical interests at home and at school.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5(5),



439-444.

- Dewey, J. (1902). The school as social center.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 3(2), 73-86.
- Dewey, J. (1964). *The child and the curriculu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ardner, P. L., & Tamir, P. (1989). Interest in biology. Part I: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26(5), 409-423.
- Jonson-Reid, M., Davis, L., Saunders, J., Williams, T., & Williams, J. H. (2005). Academic self-efficacy among African American youths: Implications for school social work practice. *Children & Schools*, 27(1), 5-14.
- Kanfer, F. H., & Hagerman, S. (1980). *The role of self-regulation*. In L. P. Rehm (Ed.), *Behavior therapy and depression: Pres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NY: Academic Press.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NY: The guilford press.
- Kohut, H. (1973). Psychoanalysis in a troubled world. *Annual of Psychoanalysis*, 1, 3-25.
- Meeus, W. (1994). *Psychosocial problems and social support in adolescence*.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241-255.
- Meyer, Y. (1992). *Wavelets and Operators: Volume 1 (No. 3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olten, P. W. (1994).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Doctoral dissertation.
- Radocy, R. E., & Boyle, J. D. (2012).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musical*



- behavior*. Illinois: Charles C Thomas Publisher.
- Renninger, K. (1990). Children' s play interests, representation, and activity. *Knowing And Remembering In Young Children*, 3, 127–165.
- Shaw, C. N., & Tomcala, M. (1976). A music attitude scale for use with upper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4(2), 73–80.
- Simpkins, S. D., Vest, A. E., & Becnel, J. N. (2010). Participating in sport and music activities in adolescence: The role of activity participation and motivational beliefs during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11), 1368–1386.
- Temmerman, N. (2000). An investigation of the music activity preferences of pre–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Music Education*, 17(1), 51–60.
- Yim, H. Y. B., & Ebbeck, M. (2009). Children' s preferences for group musical activities in child care centres: A cross–cultural study.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7(2), 103–111.
- Zimmerman, B. J., Bandura, A., & Martinez–Pons, M. (1992). Self–motivation for academic attainment: The role of self–efficacy beliefs and personal goal setting.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9(3), 663–676.

## 부 록

### 설 문 지

안녕하세요.

이 설문은 음악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들의 음악흥미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 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문항에는 정답이나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자유롭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설문내용은 통계법 제 13조(비밀보호 등)에 의거하여 **익명처리 및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은 총 4개 부분으로 이루어지며 귀중한 응답이 연구결과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문항도 빠트리지 마시고 성실히 응답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전공  
 연구자: ○ ○ ○  
 연락처: ○ ○ ○

○ 아래는 여러분의 기본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 표시하거나 빈칸을 적어주세요.

- |             |                                |        |       |
|-------------|--------------------------------|--------|-------|
| 1. 성별       | ① 남                            | ② 여    |       |
| 2. 나이       | (                      )       | 세      |       |
| 3. 학년       | ① 1학년                          | ② 2학년  | ③ 3학년 |
| 4. 음악 참여 시간 | 1주당 약 (                      ) | 시간     |       |
| 5. 학교 구분    | ① 일반계                          | ② 자율형  | ③ 특성화 |
|             | ④ 특수목적                         | ⑤ 영재학교 |       |

# 1 음악흥미도

○ ‘음악흥미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O 또는 ✓표시 해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음악 시간이 기다려진다.	①	②	③	④	⑤
2	언제나 음악 듣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음악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특별활동이나 방과 후 교육활동에서 음악활동을 선택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음악이론에 대해 잘 알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6	음악 시간에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르고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친구와 음악활동(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음악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 시간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9	어떤 노래는 즐거운 일들을 기억나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기분이 우울할 때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좋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11	다른 친구의 연주를 주의 깊게 듣고 칭찬 또는 평가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기회가 되면 음악을 배우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3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춤추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4	음악에 관심을 갖고 책이나 음악 잡지를 읽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기회가 있으면 음악회에 자주 간다.	①	②	③	④	⑤
16	좋아하는 음악의 영상자료나 CD를 사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7	노래를 만들어 부르거나 가사를 바꾸어 부르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장래에 음악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9	음악 공부를 열심히 하면 교양인으로서 자질을 충분히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음악은 교육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교과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2 학업적 자기효능감

○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O 또는 ✓ 표시해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가능하다면 어려운 과목은 피하고 싶다. (R)	①	②	③	④	⑤
3	깊이 생각하는 문제보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더 좋다.	①	②	③	④	⑤
4	비록 실패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풀지 못한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5	시간이 많이 들어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과목이 더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만약 여러 과목 중 몇 과목만 선택할 수 있다면 쉬운 과목만 선택할 것이다. (R)	①	②	③	④	⑤
7	학교 공부는 무조건 쉬울수록 좋다. (R)	①	②	③	④	⑤
8	쉬운 문제보다 조금 틀리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좋다.	①	②	③	④	⑤
9	쉬운 문제 여러 개보다 어려운 문제 하나를 푸는 것이 더 좋다.	①	②	③	④	⑤
10	쉬운 과목보다 어려운 과목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수업시간에 새로 배운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보통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수업시간 중에 중요한 내용을 잘 기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싫어하는 수업시간에도 주의집중을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바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 잘 안다.	①	②	③	④	⑤
18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과제를 잘 마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너무 큰 스트레스다. (R)	①	②	③	④	⑤
22	시험 전에는 시험을 망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R)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3	수업시간 중에 선생님이 문제를 풀라고 시킬까봐 불안하다. (R)	①	②	③	④	⑤
24	토론할 때 혹시 창피를 당할까봐 의견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한다. (R)	①	②	③	④	⑤
25	수업시간에 발표할 때 실수할 것 같아 불안하다. (R)	①	②	③	④	⑤
26	선생님이 모두에게 질문할 때 답을 알아도 대답하지 못한다. (R)	①	②	③	④	⑤
27	시험이 다가오면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다. (R)	①	②	③	④	⑤
28	시험 때만 되면 우울해진다. (R)	①	②	③	④	⑤

### 3 학교생활 만족도

○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O 또는 ✓표시 해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에 다니는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학교만 오면 피곤한 줄 모르고 시간이 잘 간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학교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학교에는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선생님이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가까이 대하기가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6	학교에서 반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반 친구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위로하고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나의 진로에 적합한 내용이다.	①	②	③	④	⑤
9	학교 수업시간 중 선생님의 질문에 편안하게 대답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수업시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학급 친구들은 협동심이 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교실은 공부할 조건과 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등·하교 길은 안전하며 교통수단 이용이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쾌적한 우리 학교 환경은 나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학교의 교칙에는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학교는 교칙 위반 시 처벌보다 대화로 선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학교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특기적성시간은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된다.	①	②	③	④	⑤
20	선생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1	선생님은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2	선생님은 내가 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3	친구들은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4	친구들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생각이나 의견을 말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5	친구들은 나의 의견을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준다.	①	②	③	④	⑤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